

Issue Comment

2018. 8. 13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8월 둘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0.3%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29.0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3.2% WoW), 소맥(-1.7% WoW), 대두(-4.5% WoW), 원당(-2.9% WoW) 기록. 옥수수는 지난주 미국 GTE비율이 72%에서 71%로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 옥수수 GTE비율을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가격 하락 지지. 소맥은 고온 건조한 날씨 지속으로 전세계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소맥 가격 상승 랠리가 지속됐으나 차익 실현 매도세로 주 후반 가격 하락. 미국 블밀 GTE비율은 78%에서 74%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동기 32% 대비 매우 양호한 점이 가격 상승 제한. 대두는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미국산 대두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가격 압박. 미국 대두 GTE 비율은 전주 70%에서 67%로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 60%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 그 결과 가격 하락 기조 지속. 원당은 브라질에 사탕수수 작물의 생장에 우호적인 기상 환경이 예측되며 가격 하락. 주 중반 브라질 생산량 감소 소식으로 가격 상승했으나 브라질 해발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임에 따라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가격 하락하며 상승폭 상쇄. 그 결과 전주 대비 2.9% 하락.

중국 최근 라이신 공장 재고 압박이 완화되며 시가 꾸준히 인상 중. 최근 몇 개월 동안 라이신 수출 크게 높은 수준 유지. 아지노모토 Thailand 장기 경쟁으로 2019년 9월 라이신 생산 증단 결정. OEM 제품 생산은 유지. Dongxiao 9월 신공장 가동 예정. Wanli Runda 9월 공장 가동 예정. Qifeng 10월 라이신 생산 예정. 메타오닌은 시장 공급 과잉 상황하에 최근 가격 하락. 위안화 약세가 수출에 유리한 상황. Ningxia Ziguang 7월 증순에 계획된 15일 간의 유지 보수 일정 진행중. CJ 말레이시아 메티오닌 공장 7월 초 ~8월 증순 동안 유지 보수 계획으로 공급 과잉인 중국 국내 메티오닌 공급 완화되며 시장 안정 전망. 쓰레오닌은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량 감소했으나 재고 압력을 여전한 상황. 향후 약세 기조 유지. 회전율도 하락 중. Yipin 도 생산 보류 상태. 트립토펜은 생산 감축으로 인한 제한된 재고와 중국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 형상으로 전주 대비 3.2% 상승. 단기간 점진적 상승 예상

국내 이벤트는 1. 하이트진로, 올해 상반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로의 소주 수출액 500만 달러(+ 51.5% YoY) 달성 2. 소맥, 전 세계 폭염으로 인해 소맥 가격 상승 지속. 가축 사료 및 밀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3. 하림, 계열사 'HARIM USA, Ltd'에 55억 5500만원 출자. 출자 목적은 유상증자 참여 4. 오리온, 스낵 '고래밥' 베트남에서 1~7월 누적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해 사상 최고 성장을 달성 5. CJ제일제당, 간편식 냉면 지난 7월 한달간 매출 100억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2%이상 성장해 6월 역대 최고 매출이었던 80억원 기록 경신 6. 우유, 서울우유 5년 만에 흰 우유 리터당 90원 가격 인상. 오는 16일부터 흰 우유(1L 기준) 가격 3.6% 인상

2. 금주 전망

음식료: 의견 Overweight, 하반기 전망 HMR, 해외언어라운드로 오리온, 롯데푸드, 매일유업 선호 CJ제일제당, 동원F&B 하반기 턴어라운드 전망

오리온은 5월~6월 꼬북칩 매출액 본격 반격 및 개선된 수익성 효과 지속될 전망. TT채널 대리점 일원화 작업 지속으로 하반기까지 500여명 추가 구조조정. 하반기 초코파이 가격인상, 견과류 신제품 매출은 추가 성장요인. 마진을 측면에서 스프라이즈는 지속가능성 있다고 판단. 롯데푸드 후례쉬밀리카 흑자 전환 지속으로 2분기 식품부문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 지속. 분유 수출은 4~6월 정상화 하반기는 공장 추가 인증에 따른 매출액 증가 예상. 국내 분유는 매출액 유지 지속. 유키공 부문은 1분기 가격인상 및 전년도 햄버거킹 저분기 2분기 이후는 P, Q, C 성장 예상. 매일유업 분유 수출은 1분기 80억원 기록 이후 2분기 100~120억원 흐름 예상.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는 지속되고 있지만 백색시유, 상하목장, 커피음료 등 주요 카테고리 매출 성장도 지속. 2분기는 1분기 대비 마케팅비 지출이 예상되지만 계절성을 반영한 지출이므로 yooy 큰 폭의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 CJ제일제당 가공식품의 외형 성장 및 소재 식품의 수익성 개선 지속. 쉬안스 컵포니 인수 가능성이 가공식품 매출액 레밸업이 가능한 M&A로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 마니커 투자는 이지바이오와의 협업을 위한 140억원 보증금 성격의 투자로 사료부문의 투자 확대로 판단하지는 않음. 해외바이오 부문은 소프트 가격 하락이 우려스럽지만 가격 하락이 후 바닥 시그널(가동률 하락, 2~3분기 수요 회복 등) 발생하는 상황. 아미노산 가격 반등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동원F&B 1분기 원가 부담에 따른 부진 이후 매출액 성장은 지속. 하반기 참치어가, 치즈원가 전년대비 하락 전환으로 원가 개선 기대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CJ제일제당 (097950)

2Q18 실적은 영업이익(대통령 제외) 1,312억원(+26.0% YoY)을 기록하며 기대에 부합했지만 가공식품 영업이익률이 6%대를 기록하며 내용면에서는 기대 하회. 가공식품이 부진한 반면, 생활자원 부문은 초기 턴어라운드 하며 177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소재부문은 원당 저가 투입에 설탕 성수기 효과로 수익성이 예상치 상회. 가공식품의 부진은 국내 농산물(쌀 +40.0%, 건고추 +71.0%) 원가 부담에 가격인상 효과가 지연됐기 때문인데 하반기 지속될 가능성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요인. 가공식품 영업이익은 3분기 역신장 지속, 4분기 성장 전환이 예상. 3분기에는 추석관련 비용 우선인식으로 영업이익 성장 전환 예상됨. 해외 바이오 부문은 소프트 가격 저점을 3분기 확인. 라이신을 비롯한 주요 제품 가동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한 상황이며 원가 절감과 수율 개선으로 대응하고 있어 동일한 가격에서도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전체 수지는 컨센트에 부합했지만, 농산물 원재료 부담으로 가공식품 수익성 하락이 아쉬운 실적. M&A 모멘텀 부각 이전까지 정체흐름 후 M&A 성공 여부가 주가 향방을 결정할 전망

CJ프레시웨이 (051500)

2Q18 영업이익은 138억원을 기록, 전년비 1.6% 감소했으며 컨센서스를 10.6% 하회. 부진한 영업률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견조한 매출 성장을 달성했지만(외식/급식 유통 +11.8%, 프레시원 유통 +6.1%, 푸드서비스 +16.8%),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판관비 증가가 더해지며 수익성 하락을 피하지 못함. 부문별 매출액 성장요인이 수주에 기반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지속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 하지만 인건비/물류비 증가 역시 동행하므로 영업이익 성장 전환에 대한 가시성은 아직 낮음. 송림푸드는 정상화가 지연되며 2018 매출액은 전년비 15.5%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5억원으로(2Q17 OP 12억원) 축소됨. 주요 매출처의 신제품 출시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신규공장(3공장)은 매출 없이 고정비만 반영됐기 때문. 원가절감 노력을 감안할 때 하반기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신규 공장 가동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동반 성장이 기대됨. 하반기 영업환경 중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외식/급식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 2분기 발생한 판관비 증가 흐름은 지속되는 이슈로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8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8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8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